

## 아내는 내 철학이다

“아내는 나의 철학입니다. 아내없인 내 철학도 없습니다.”

때는 1933년 나치가 정권을 잡고 유태인을 학대하기 시작한 때였다.

야스퍼스의 아내인 게르투르트 마이어는 유태인이다. 두사람이 처음 만난 것은 야스퍼스가 하이델베르크대학을 다닐 때에 같은 학교에서 만나 서로가 첫 눈에 끌려 결혼하였던 것이다.

얼마 후 야스퍼스는 모교에서 철학과 심리학을 가르치는 정교수가 되었고 아내 게르투르트와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나치 정권으로부터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압박이 가해지기 시작하였다.

“아내와 대학 교수직 중 하나를 선택하라.”

이러한 청청벽력 같은 명령이 그에게 내려졌다. 영광스러운 하이델베르크대학에서 계속 일하고 싶으면 유태인 아내와 이혼을 하라는 것이다. 그때 그는 이렇게 ‘아내없이는 내 철학도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면서 미련 없이 교수직을 버리고 아내를 선택했던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강의와 저작활동도 금지되고 여행도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게 되자 야스퍼스는 스위스로 망명을 결심하고 겨우 허락을 받았으나, 그의 아내 게르투하르트 독일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결국 망명도 포기하고 그 후 나치 정권이 망할 때까지 8년동안이나 숨어 그림자처럼 아내의 곁을 지켜주었다.

만일 야스퍼스에게 그러한 용기와 재치가 없었다면 아내도 철학도 모두 다 잃을 뻔한 위기를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